

# 최초 항생제 설파제는 어떻게 인류를 구했나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 감염의 전장에서

토머스 헤이거 지음, 노승영 옮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80명대로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N차 감염을 비롯한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방역당국은 물론 나라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



세계적인 방역 모범 국가인 우리나라 사정이 이렇진대 다른 나라 사정은 두말할 나위 없다. 미국과 서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도 속수무책이다. 한마디로 지구촌의 동선을 멈춰 세운 코로나의 위력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과학 기술 문명이 발달한 2020년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가 움찔쩍쩍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에 세계는 과학과 사회의 정교한 시스템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바이러스 위력을 똑똑히 실감했다.

그나마 오늘의 상황은 더 나은 편이다. 1세기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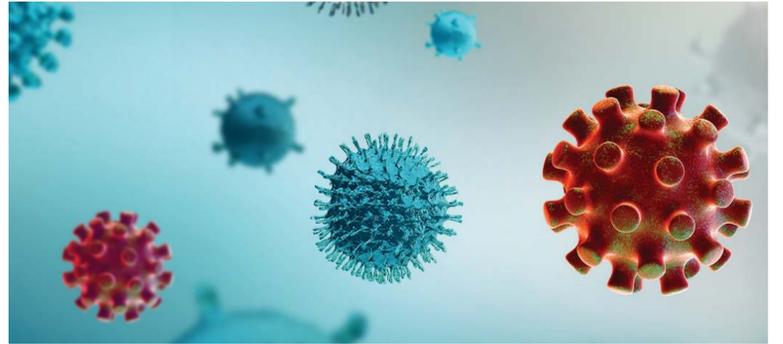
만 해도 상황이 훨씬 심각했다. '미국의학협회 저널' 필진이자 과학·의학 분야 저술가인 토머스 헤이거는 "우리 부모 세대는 어릴 적에 연쇄구균 인두염, 배인 상처의 감염, 성홍열, 수막염, 폐렴을 비롯한 수많은 감염병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었으며 실제로 죽는 일도 많았다"고 회고한다. 그러면서 그는 "나와 친구들이 살아남은 것은 항생제 덕분"이라고 했다.

토머스 헤이거가 이번에 펴낸 '감염의 전장에서'는 바이러스 이전의 세균과의 전쟁을 다룬 책이다. 저자는 최초 항생제 설파제를 발명해 노벨상을 수상했던 게르하르트 도마크의 삶과 당시 세균 감염의 실상, 강대국들의 대처 방안 등을 다각도로 조망한다. 특히 최초의 항생제인 설파제가 어떻게 발명됐는지를 면밀하게 들여다본다.

사실, 1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위협적이지 않은 감염병 때문에 변변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었다. 일례로 1차 세계대전에서 상처 감염으로 죽은 병사가 수십만이었다. 이들 사망자는 적군의 총탄에 맞아 숨진 병사의 수보다 훨씬 많았다.

책의 주인공인 게르하르트 도마크(1895~1964)는 전장에서 세균의 무서움을 실감했다. 도마크는 실제 전투보다 무서운 것이 세균과의 싸움이라고 백백한다. 그는 의대에 재학 중 독일군으로 1차대전에 참전해 부상병을 치료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수술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감염 없이 해낸 환자가 상처 감염으로 죽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는 놀라운 일이었다."

도마크의 설파제라는 항생제 발명과 아울러 주목할 것은 파스퇴르의 연구였다. 파스퇴르 덕분에 세균이 감염병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던 것이다. 또한 세균학의 기초를 세운 코흐라는 연구도



토머스 헤이거는 저서 '감염의 전장에서'에서 최초의 항생제인 설파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사망률을 낮추는 데 기여했는지 조망한다.

빼놓을 수 없다. 그는 각각 다른 세균이 디프테리아, 결핵, 탄저병, 폐렴, 파상풍, 콜레라 등을 발병케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러나 질병이 세균에 의해 발현된다는 것과 세균을 박멸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이런 상황에서 도마크가 발명한 설파제는 예상 밖의 효능을 발휘한다. 산욕열로 인한 산모 사망을 급격히 낮췄던 것이다. 산욕열이 무섭게 확산될 때는 산모의 25%가 생명을 잃을 정도로 치명적이었다.

설파제는 산욕열 외에도 성홍열, 수막염, 중이염, 편도염 치료에도 효과를 발휘했다. 당시로서는 '기적의 약품'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이후 유행, 특허권을 싸고 각 나라간 갈등이 발생했다. 제약회사, 연구소는 약의 상용화 과정을 둘러싸고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설파제의 효능은 의사와 병원의 역할을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변모시켰다. 병원은 환자에게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됐고 왕진제도는 거의 사라졌다. 분반의 90% 이상이 병원에서 시술됐으며 대다수의 사들은 병원이나 관련 사무실에서 일을 했다. 저자는 '이 모든 것이 설파제 또는 항생제 발명과 함께 시작된 현상'이라고 강조한다.

코로나 19로 인류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현재로서는 마땅한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방, 공중보건 강화, 방역은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됐다. 설파제가 감염과의 전투에서 인간을 '치료'한 최초 약물이었던지, 코로나 19에 맞설 치료제 또한 언젠가는 발명될 것이다. 그 치료제는 훗날, 아니 1세기 후 '기적의 약'으로 기록될지 모른다.

〈동아시아·2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울곡의 말

이이 지음, 조일동 역음

"부모를 섬기는 사람은 한 가지 일이나 한 가지 행실이라도 스스로 하지 말아야 하니, 부모의 가르침을 받은 후에야 행해야 한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자세하게 말씀드려 승낙을 얻은 후에야 행하며, 끝내 허락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제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다."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이자 정치인인 울곡 이이는 '부모와 뜻이 어긋날 때'는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사임당의 아들이자 아홉 번이나 과거에 장원급제한 그는 십만양병설을 주장하고 조선의 사상을 크게 변화시킨 학자다.

울곡 이이의 글들 중 오늘날 삶의 지침이 되는 문장을 모은 책 '울곡의 말'이 발간됐다. 책은 '마흔의 봄'을 썼던 기획자인 조일동이 역었다.

'울곡의 말'에는 대학자로서의 면모뿐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깨우치기를 멈추지 않았던 모습이 담겨 있다. 책은 공부에 임하는 이들을 위한 '격몽요결', 수양을 위해 지은 '자경문', 과거시험 답안인 '천도책'에 이르는 내용 등도 수록했다.

특히 이이는 배우지 않으면 사람이라 할 수 없고 배운 것을 올바르게 행하는 일을 강조했다. 다음과 같은 말은 여전히 오늘에도 유효하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배우지 않으면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없으니, 배운다는 것은 이상하건 비난 것이 아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울곡이 살았던 시대와 오늘의 시대의 고민이 크게 다른 것은 아니다. 배움의 자세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세상과 어울리는 지혜 등은 오늘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다. 한마디로 그의 글을 통해 배우는 인생 공부라 할 수 있다. 〈이디북스·1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나는 나무가 되고 구름이 되어

최하림 지음, 장석남 외 역음

목포에서 태어나 1960년대 김현, 김승옥, 김지수와 함께 '산문시대' 동인으로 활동했던 시인. 1964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빈약한 울폐의 회상'이 당선돼 문단에 나와 '우리들을 위하여', '속이 보이는 심연으로', '굴잡나무숲에서 아이들이 온다' 등의 작품집을 펴냈던 시인. 또한 이산문학상, 현대불교문학상, 올해의 예술상 문학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던 시인. 바로 최하림 시인(1939~2010)이다.



시인이 우리곁을 떠난 지도 10주년이 됐다. 2010년 4월 만 71세를 일기로 타계한 시인은 현대문학사에 한 축을 담당하는 시인이었다. 10주기를 맞아 시선집 '나는 나무가 되고 구름이 되어'가 발간됐다. 장석남 시인을 비롯해 박형준·나희덕·이병률·이원·김민정 시인이 엮었다.

전병준 평론가는 "역사와 사회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언어의 예술성 자체에 대한 발본적인 물음을 던지며 자신의 시학을 형성하고자 한 시인"이라고 평한 바 있다.

이번 시선집에는 5·18의 역사적 기억을 시의 주된 질료로 삼았던, 그러면서 또 동화적 상상력이 결합된 초기 시부터 자연의 생명력을 토대로 치유의 과정에 초점을 맞췄던 작품들이 수록돼 있다. 또한 역사마저도 시간의 경과라는 인식을 하게 된 후기 시까지 아우른다.

"가파른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 허공에서 소실점으로 사라지는, 머릿속에만 있으나 존재하지 않는 절대음처럼, 말들은 사람의 집을 찾아서 아득히, 말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다." ("말" 중에서)

나희덕 시인은 작품 '말'에 대해 "시인은 생각을 멈추고 고요히 풍경의 일부가 된다. 그 평화에 이르기까지 그는 참 오래도록 뒤척였을 것이다. 내면에 흐르는 수많은 물소리와 함께"라고 평한다. 〈문학과지성사·1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마음이 아플 땐 불교심리학

책 콘필드 지음, 이재석 옮김

서구 명상 지도자 책 콘필드의 대표작 'The Wise Heart'를 번역한 책이 출간됐다. '마음이 아플 땐 불교 심리학'이 그것.



책은 미국 명상과 마음 치유 관련 'Must Read' 목록에 올라가 있으며 2009년 출간 후 10년간 아마존닷컴 스테디셀러로 알려져 있다.

저자 책 콘필드는 태국, 미얀마, 인도에서 승려로 수행한 뒤 1974년부터 세계 곳곳을 다니며 명상수행을 지도하고 있으며 '처음 만나는 명상 레슨', '어려울 때 힘이 되는 8가지 명상', '마음의 숲을 거닐다' 등을 펴냈다.

우리는 살면서 불가피하게 아픔(pain)을 만난다. 그럴 땐 병원에 가는 게 좋다. 저자는 필요하다면 마음치료를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서양의 치료법에 동의하지만 아픔과 고통(Suffering)은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아픔을 혼란, 상실, 좌절, 두려움, 수치심으로 승화시키는 상태는 이미 고통으로 접어든 단계다. 그때는 병원이 아니라 방석 위로 올라가 호흡을 관찰하면서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치료법이라고 이야기한다.

책은 "당신은 정말 누구인가?" "마음챙김: 위대한 의술", "괴로움의 뿌리를 변화시키다", "자유 발견하기", "현명한 기쁨을 체험하다" 등 총 4개 파트와 24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저자는 상실, 두려움, 좌절 등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만난 이야기도 풀어놓는다. 치유 방법은 내려놓기, 용서, 연민, 자애 등으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각 장의 말미에 수련 방법을 담았다. 〈불광출판사·3만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수목장 허가·운영 전문기업

# 수목장 투자 신규 수목장 투자

## 2,000만원부터 투자 가능

**예상수익** 2,000만원 투자로 월 85~105만원 수익 예상  
평생 소득 구축, 30명 한정투자

화장 후 가장 선호하는 장례법

수목장	44.2%
남골당	37%
산소	4%
기타	14.8%

실제 이용하는 장례법

수목장	14%
남골당	74%
기타	12%

자료 : 보건복지부

노후 준비 +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장례준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기회

# 친환경 장묘문화(주)

전화 070-5172-3090  
H.P 010-8431-5199